

[보도자료]

다쏘시스템 등 5개 유럽 기업, '소프트웨어 리퍼블리크' 설립...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 각 분야를 대표하는 5 개의 업체가 새로운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프트웨어 리퍼블리크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도모하며, 개방형 협업을 전개
 - 5 개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두 가지 제안 제시

대한민국 서울, 2021년 5월 3일 -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아토스, 르노그룹,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탈레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연구단체인 '[소프트웨어 리퍼블리크\(Software République\)](http://www.software-republique.com)'를 공동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5개 기업은 상호 보완적인 전문 지식을 통합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도시, 지역, 기업, 시민에게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IT 기술 업계를 선도하는 5개 기업의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커넥티드 기술, 임베디드 전자제품, 버추얼 트윈 기술은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구성원의 가입을 도모하며, 개방형 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5년까지 60% 성장해 약 11,0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등장한 전기차, 전장부품, 애프터서비스(AS)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등이 급격한 기술 변화와 시장 성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신규 시장의 점유율은 5%에서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외 다른 대륙 선도기업들은 이미 국가의 지원으로 통합된 전략을 통해 상당한 신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에서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리퍼블리크를 설립한 5개 기업들은 프랑스와 유럽이 세계 모빌리티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5개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차량과 디지털·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지능형 시스템, ▲지역과 기업 간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전기차 충전 경험을 단순화하는 에너지 생태계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한다.

예시로, 소프트웨어 리퍼블리크의 5개 기업들은 충전소에서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연결하면 사용자 인증·결제에 자동으로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Plug and Charge\)](http://www.software-republique.com)' 충전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논의

중이다. 또한, 도시와 지역에 걸쳐 모빌리티 데이터 교환에 대한 접근성과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흐름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단시간, 편리함 또는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최적의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운영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비상·응급 상황 발생시 교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설계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소프트웨어 리퍼블릭은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유망한 스타트업 및 인큐베이터에 투자 자금과 개발 및 실험을 지원하는 가상의 협력 환경, 가치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과 대학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 챌린지를 구성해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쏘시스템 버나드 샬레(Bernard Charlès) 회장은 “우리는 모빌리티를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의 일부인 업무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 경제는 전 세계 인더스트리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협업 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로 재편성될 것이다”라며, “소프트웨어 리퍼블릭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향후 미래의 원동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와 기술이 접목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이다. 다쏘시스템은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가상의 협업 환경과 버추얼 트윈 경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3D익스피리언스 랩을 활용해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여 개국에서 29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다쏘시스템코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emes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카카오톡: <https://go.3ds.com/q70>

다쏘시스템코리아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3DSKOR>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s://blogs.3ds.com/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3ds.com/ko/>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대표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엘리슨+파트너스 코리아
이혜연 과장



jeemin.jeong@3ds.com



010-7310-2318

3dsKR@allisonpr.com